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창간 1955년 4월 11일 www.hufspress.com  
발행인 박철 편집인 김주환 서정민 편집장 서지형  
제작 누리열시스템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 2173-2504 / 02) 2173-2505 (F)  
(홍인) 031) 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용원리 산 89

2009년 3월 30일 월요일 913호

## 정기총회 어디로 갈 것인가

### 정기총회 핵심은 학생참여 용인배움터는 거수없는 정총까지 논의 돼

정기총회(이하 정총)는 한 학기에 한 번 총학생회가 학생회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중요한 의미가 큰 행사이다. 지금까지의 정총은 거수를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의 사업과 사업진행정도를 발표한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정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용인배움터에서는 정총 거수 생각이 지난 25일(수)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논의됐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신영(어문·프랑스어과 02) 군은 “정기 총회에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학생 거수없이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31일(화)에 열리는 확운위에서 다시 한 번 정총 거수 생각이 논의될 예정이다.

각 배움터 총학생회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용인배움터는 오는 4월 2일 오후 6시 노천극장에서 정총이 개최된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정총 참여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연예인을 초청해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이 초청 연예인에만 쏠리는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907호에서도 연예인에 쏠리는 관심 탓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정총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생회 정기총회 홍보 현수막 내용은 ‘브라운아이즈와 함께하는 정기총회’이다. 박한나(경상·국제경영 05) 양은 “정총의 홍보물에서 조차도 초청 연예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며 “정총에서 발표될 학생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서도 오는 4월 8일 정총을 개최한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도 정총 홍보를 시작했다. 용인배

움터에서 연예인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학생회장 최부열(사회·인문정보 02) 군은 “정총에 연예인을 부르면 안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의된 사안에 대해 의지를 다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신 정총수 미달로 정총이 결렬돼 왔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정총 진행을 간소화하고 홍보를 위한 실천단을 구성하고 있다.

실천단은 단대표, 집행부, 과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총 홍보를 위한 아집선전, 마당사업, 저녁선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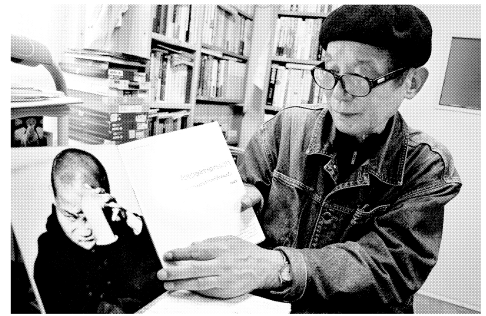
총회에서 문건을 낭독하는 대신 영상물을 보여줄 예정이다. 안건은 등책위설립, 학자유구간의 두 가지 중요한 사안으로 축소하여 학우들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정총에서는 새내기 울릉제, 품종 날리기 등의 부속 행사도 진행된다.

최영민 기자 young8827@hufs.ac.kr

## “내가 놀 시간이 어딴나, 나이가 여든이 넘었는데”

### 대학생들에게 일침



### 최민식 사진작가 인터뷰

“집 일이 대학가인데, 참 답답하다. 대학생이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대학생이 가져야 할 정서와 인격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에는 학문이 없어지고 점수 따는 일만 남았다. 예대의 문제도 심각하다. 졸업하고 갈 곳이 없으니 미대생이 공무원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강사자리도 없다. 한사람이 죽어야 들어간다. (웃음)”

책을 읽지 않으니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독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행위다. 술 마시고 놀 시간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는다. 학교 앞에는 서점이 없고 근처 서점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서점은 원래 1층에 있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리는 건데...

책을 읽지 않으니 자연히 글도 못

쓰게 된다. 대학생들 독서 문제는 크다. 일단 나라나 대학에서 도서관 관련 책을 사다가 도서관에 넣기보다 취업 관련 책만 사다 채우고 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학문을 연구하지 않고 취업준비만 하고 있다. 미대생이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정도이다.

부산일보 사장을 잘 아는데, 사장실에서 교수 여럿이 독서를 통한 시찰을 위해 도서관을 왔다. 문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문화면을 활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서점에 매우 자주 간다. 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도 습관처럼 무슨 책이 나왔나 보러간다. 당장의 패락을 위한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사람면(12면)에서 계속▶

## 양 배움터 등록금 인하 청원운동 진행 돼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국제학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5조원 추경편성, 대학생 청원 운동’을 벌였다. 총학은 3일 동안 학우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서울배움터 총학은 국제학사 앞에서 3일간 청원운동의 일환으로서 서명을 받았다. 1,000명의 학우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68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장 추성호(사법·한국어교육 02) 군은 “목표만큼 서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해주셨다”며 “우리학교 서명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세영(중앙·아랍어 05) 군은 “등록금 인하에 찬성하여 서명에 참여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며 청원운동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용인배움터에서는 경상대학 학생회의 주도로 7개 단과대에서 참여해 18일(수)부터 24일(화)까지 5일간 청원운동을 벌였다. 청원운동은 등록금대체유위헌시안·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이하

한대련)과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청원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이하 추경예산)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를 골자로 한다.

각 단과대에서 1,5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1,3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 경상대학 학생회장 정종희(경상·경영정보 07) 군은 “서명을 한대련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채운태 기자 placido@hufs.ac.kr  
사회면(5면)에서 계속▶

## 치면안내

### 04 대학기획

7서 알아보기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의 일환으로 8학기 중 1학기를 해외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하는 7+1제도.

이번 대학기획에서는 7+1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7+1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며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 08 국제

에먼테라를 보다



에먼에서 한국인에 대해 연세 테라가 발생했다. 이번 학보 국제면에서는 이같은 중동권 테라 원인을 살펴본다.

### 05 사회

등록금 청원운동 시적

우리학교 양배움터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5조원 추경편성, 대학생 청원 운동’이 진행됐다. 30초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그러나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 편성은 미미하다.

과연 실현 가능한 청원인지 알아본다.

### 09 학술

모국어와 외국어의 학습차이

요즘은 하나의 언어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받는다. 이번 학술면에서는 외국어를 배우기 가장 효과적인 시기와 모국어인 한국어와 외국어와의 상관성, 그리고 언어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06 문화

우리들의 성 이야기

20살 S양은 요즘 고민이 있다. 태어나 처음 사귀게 된 남자친구 때문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과도한 수위의 스킨십을 요구하는 그 때문에 S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 오늘, 친구 E양과 X양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기로 하는데...

### 12 사람

최민식 사진작가를 만나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81)씨, 평생 신산(辛酸)한 삶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우리시대의 거장 리얼리즘 사진 작가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그것이 기생하는 권력의 부조리함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80이 가까운 노구에 카메라 두대를 걸쳐메고 댈다.



## 빈 의자

## 21세기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는 것이 그리도 힘들었을까. 그들 속을 모르는 이는 한숨이 쉼없다. 도대체 왜 죽는가에 대한 한숨이 아닌, 사람을 죽게 하는 세상에 한숨이 난다.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 학교를 휴학하고, 취업을 못해 목숨을 끊는다. 초등학교생이 사는 것이 어려워, 돈 없는 노인은 차라리 죽는 게 쉬워 목숨을 끊는다. 어떤 이는 각박한 이 세상, 말할 친구가 없어 세상을 견뎌버리기도 한다. 여배우 장자연은 그녀가 속한 세상이 터러워서 죽었다. 삶의 질은 이 모양인데 어서 국민소득 3만불 이룩하자니, 당차도 없다. 만년 2만불로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객관 보도와 권력의 감시·비판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게 됐다고, 그걸 엄(嚴)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를 잡아 처단하는 일은 아주 옛날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 불타르 시대,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2-3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2009년 오늘날에도 정권에 반하는 자들을 잡아간다. ‘미네르바’ 구속 소식을 들은 해외언론

들은 이 사건을 ‘민거나 딸거나’란에 넣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문이 났나보다. 정지도 거꾸로, 경제도 거꾸로.

▲ 빈의자가 자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전에 했던 언론탄압이야기(905호)도 자살이야기(907호)도.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우려 먹고 싶지도 않다. 최근 잇따른 언론인 체포소식을 담은 뉴스의 댓글에는 ‘시대가 어느 때나...’하고 역류하는 댓글에 대한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는데 참으로 서글퍼졌다. ‘핏값골 세상에 21세기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 요즘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잡아가지 않겠지’라고 말하며 글을 쓴다. 농담이 아니다. 외대학보도 과거 독재정권의 검열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학보 편집장과 기사를 잡아가고 학내 기자실을 폐쇄했다. 추억처럼 이야기되던 선배들의 그 시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런 글을 썼다고 잡아가지 않겠지.

편집장

학내단신

어문관·본관·학생회관 정전 빈번

용인배움터 어문관, 본관, 그리고 학생회관에서 정전이 이번 달 빈번히 발생해 학생들의 불편이 크다. 환경절로 인해 보일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학생들과 교수들의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여, 오래된 변압기가 과부하를 일으켰다. 이에 시설관리팀 이영수 팀장은 "컴퓨터나 전동은 전력량이 작지만 전열기는 30A로 크다"며 전열기 사용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텔런트 전원주씨 강연회

오는 4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용인배움터 세화관에서 텔런트 전원주 씨 강연회가 열린다. 용인시 여성문화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이번 강연의 연제는 '영원한 이등인생은 없다'이다. 이번 강연은 외대학우 뿐 아니라 용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생협·학복위 복지 장학생 발표

지난 19일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은 복지장학금 수여자를 발표했다. 총 35명이 지원했으며 25명이 최종선발됐다. 장학금은 월 30만원씩 총 120만원이 지급되며 장학생은 매주 2시간씩 의무근로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도 지난 23일 복지장학금수혜자를 발표했다.

서울배움터 동아리박람회 진행돼  
용인배움터는 우천으로 연기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동아리박람회의 모습.

지난 3월 16일, 17일 서울배움터의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다. 지난해부터 동아리 연합회 주축로 이루어지는 행사다. 동아리들은 각자 부스를 만들어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 동아리박람회에는 소속 동아리 54개가 참여했다. 지난 해 40여 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동아리 회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늘어났다.

동아리 연합회장(이하 동연회장) 박형준(영어·영문 06)군은 "동아리 박람회를 하기 전에는 각 동아리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것 이외에는 홍보할 방법이 없어 신입생들의 접근이 어려웠다"며 "박람회 실시 이후 접근성이 높아져 동아리의 존재감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동아리 박람회 개최 취지를 말했다. 교내 오케스트라 HUFSPPhil 회장 윤지호(상경·국제통상 08)군은 "신입생들에

게 동아리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신입단원모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원들끼리 이 행사를 계기로 다 친해질 수 있어 좋다"며 박람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사전홍보 미비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게릴라 콘서트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곳곳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동연회장은 "전력선 부족으로 게릴라 콘서트 공연 도중 음악이 끊기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 아쉬웠다. 그러나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배움터 동아리박람회는 3월 26일 목요일 예정되어있었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4월1일 수요일로 변경되었다. 동아리박람회를 위해 작업체별 장비를 주문하고 전막을 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취소된 것이다. 하지만 원래 기획한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동아리박람회에서는 총 42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여 주로 동아리 홍보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밖에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점심시간에 후생복지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거나 학생회관 앞에서 맥주, 풍선을 나눠주고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5개의 동아리 부스를 둘러서 스티커를 받아오면 USB를 지급하거나 10개 이상의 부스를 둘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애인 찾아주기' 이벤트도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해 동연장 권영현(통번역·영어통번역 05)군은 "대학에 갓 들어와 정신없을 새내기들에게 도움이되는 동아리를 많이 소개해 줄 예정이고,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혜원 기자  
carpediem124@hufs.ac.kr

취업특강 듣고 미리 준비하자

이번달 9일(월)부터 6월8일(월)까지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에서는 2009학년도 상반기 취업특강을 진행한다. 총 20번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취업특강은 저학년과 취업준비중인 고학년학생들에게 최근 취업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다. 매주 대기업 대표, 인사팀 과장 등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초청강사들이 진행하는 이번강의는 △입사지원서 작성법 △지원업체분석 △면접성공비법 △이미지메이킹 등의 체계적인 강의로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경력개발센터는 노동부지원 '청년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수행할 기회를 알선하고 재학생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및 학점 인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학기 중 계속 실시되며, 현장실습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공지하여 학생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수행하기 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력개발센터는 본인이 연수를 희망하는 기업 및 분야가 있는 경우, 연수 기회가 가능하도록 기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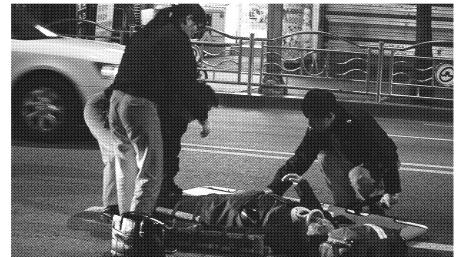
변재홍 기자 hufspress@hufs.ac.kr

잉글리시 존, 노 룰(no rule) 존?

지난해 10월 용인배움터 공학관 2층에 있던 휴게실이 English zone II (잉글리시 존)로 리모델링됐다. 휴게실이던 오명을 들었던 휴게실이 영어학습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된 것이다. 기존 어문관관 2층의 잉글리시 존 I에 이어 두 번째 잉글리시 존이다. 잉글리시 존 II의 설치 취지는 교내에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원어 민과의 영어 학습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영어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잉글리시 존 II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 일하는 수직생부터 핵심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안내와 설명을 담당하는 수직생은 학습공간인 이곳에서 지인과 잡담을 나누기 일쑤다. 내부 규칙인 'only English'가 아닌 한국어로 얘기가 오간다. 수직생부터 기본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비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보인다. 이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신 모(경상·경상 09)군은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어 그냥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칙 위반을 제할 수 있는 규제체가 없다는 것이다. 잉글리시 존을 운영하는 실용외국어 위원회 측은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적용할 규제조치가 없어 그냥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잉글리시 존의 컴퓨터로 게임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디지털서비스팀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지털서비스팀에서는 "프로그램 상 게임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준수 기자 legendsoo@hufs.ac.kr

외대 앞 교통안전 불감증 심각



학교 앞 또 교통사고

지난 27일 새벽 5시13분경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앞 대로변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무단횡단에 대한 외대인들의 심각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대역앞은 올해부터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개통으로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졌다. 외대 인근에서는 무단횡단자들의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조유라(서양·스페인어07) 양은

"학생들이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은근히 멀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렌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단횡단에 대한 외대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변재홍 기자 hufspress@hufs.ac.kr

Advertisement for '우리웃자' (We Smile) student union homepage. The ad features a screenshot of the website with the headline '우리웃자 총학생회 홈페이지 OPEN!' and a list of services: '노트북을 빌리고 싶을때!', '영화를 보고 싶을때!', '미네르바광장을 쓰고 싶을때!', '배고픈데 학교 주위 음식점 메뉴를 모를때!', '총학생회에 할 말 있을때!'. The website URL www.ihufs.com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 “나 하나 썸이야...”식 이기주의 학내 비매너 추적기

교내흡연, 도서관소음, 쓰레기문제, 질서없는 게시판 등. 비매너로 인해 새 학기를 맞은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대학보도면에서는 우리학교에서 자연스레 행해지는 비매너 문제들을 다뤘다.

### ◇도서관 '소음 신경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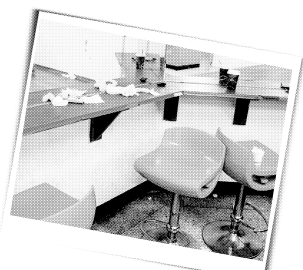
도서관의 소음문제는 크게 외부소음과 내부소음으로 나뉜다. 외부소음으로는 노천소음을 들 수 있다. 노천행사시끄러워 설치방향을 돌리거나, 출력을 낮추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부소음은 어느 특정한 날만의 문제지

를 생각하면 뛰어나갈 때부터 소음으로 열람실의 평온은 이미 절반은 깨지기 시작한다. 통화금지, 공익과 관련된 '의무'이다. 또한 시험기간중 환경은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럽다. 평소에는 텅 빈 열람실이 시험기간이 되면 발디딤틀 없이 복잡해진다. 열람실의 문주위, 특히 복도와 가까운 자리는 바깥에서 떠돌고 웃고 즐기는 등, 시험을 잊은(?) 학우들로 대단히 소란스럽다. 어느 타 대학은 이런 공공규율을 어긴 학우들에게는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제한은 '과잉' 제재가 아니다. '과잉'은 오히려 정숙을 지켜야 할 곳에서 비매너인

물,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홍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부터 보고 이용하는 학우들까지 함께 캠퍼스 내 홍보물화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달 18일 용인배움터에서는 본관앞 민주노동당 진보강연에 관한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도 있었다.

게시판을 관리하고있는 학생과, 관리과, 시설과 등도 손을 놓은지 오래다. 학생처 관계자는 "오즘 학생들은 규범을 아예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혀를 내둘렀다. 홍보물로 넘쳐나는 캠퍼스, 학생들의 의식만 탓 할 수는 없다. 게시

흡연구역은 어디일까? 재빨리가는 검찰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있는 각 건물의 입구이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런말이 들린다. "김물 출입구가 흡연구역이냐? 왜 거기서 담배 피나? 불쾌하다", "건물 출입구에서 담배피는사람 잠 매너있다" 등. 이리다보니 자연스레 흡연자들은 화장실로 발길을 옮긴다. 건물 안에서는 학생들이 동아리 방, 복도, 계단 등에서 공공연히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없다. 심지어 강의실 안에서는 누군가 몰래 피고 간 담배꽂이가 남아 있기까지 하다.



만 내부소음은 도서관에서 생활하면 매일 마주치는 문제다. 시험기간이 되면 총학생회에서도 대자보등으로 화장실 앞, 열람실 유리문 앞에서의 소음을 대해 경고를 하지만 별효과가 없다. 핸드폰 진동, 문자 소음, 하이힐 신는 여학생, 친구와의 소곤거림, 음식물 반입 후 뒷처리, 자리 맡아주기 등 도서관은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앞의 전화통화는 심각하다. 전화를 받기위해 대다수 학생들이 뛰어나간다. 우리학교 열람실 바닥 재질

우리들의 모습이다. ◇'게시판인지 벽인지... 나무는 현수막 결어' 서울배움터 정문에서 본관까지 이어진 도로 변 나무들은 하나같이 현수막 하나씩을 끼고 밧줄에 꽂혀 묶여있다. 나무가 마치 현수막을 걸기 위한 용도인 듯하다. '□□기자 모집', '○○공모전', '△△영아강좌' 등 우리학교 캠퍼스는 항상 무엇인가를 알리는 홍보물의 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캠퍼스 내 홍보

물은 넘쳐나는데, 게시판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캠퍼스가 외부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단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도배를 하고 나면, 학생들은 게시판 밖 벽에 붙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내 흡연문제도 비흡연자들 신음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홈슬라이프'에는 흡연문제에 대한 항의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학교의

◇여학우 휴게실 '여랑'의 실태 공간시간 친구들과 마음껏 대화를 나누거나 피곤할 때면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는 여랑. 용인배움터의 이러한 휴식공간 '여랑'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랑 내 테이블은 음식물을 먹은 후 치우지 않아 지저분하고,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어 엉망인 상태이다. 그리 멀지 않은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명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밖에서 흡연을 하기 관련한 여학우들이 여랑안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꽂이를 바닥에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또한 수면방에 남녀 혼숙 및 남학생출입으로 인한 다른 여학우들의 불편은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장 윤유나(통번역·영어통번역 05) 양은 "남학생출입 및 남녀혼숙을 미연에 방지 하기위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8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보다 철저한 여랑을 위해 학복처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우여러분들이 먼지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해주셔야 청결한 여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 하나 썸이야' 하는 생각이 결국 우리 모두의 생활환경을 망친다. **변재홍 기자 hufssress@hufs.ac.kr**



철이 있어  
세상은 더 즐겁고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의 모순엔 끝이 없습니다.  
맛진 건물로, 작은 권으로, 다시 태어난 철이 들려주는 음악으로—  
철이 있어 더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 바로 포스코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오늘을 가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Skol's new future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 글로벌 인재가 되는 길

# 7+1?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8학기 중 1학기를 해외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하는 7+1제도. 많은 학생들은 7+1제도를 들어 보기만 했을 뿐 실제 선발 방법이나, 해외로 나가기 위한 발급절차 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학기획에서는 7+1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7+1제도의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 본다. **편집자주**

### # 7+1이란?

7+1제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 그리고 생활 경험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에서 2006년부터 도입됐다. 7+1은 말 그대로 8학기의 재학기간 중 한 학기를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7+1에 선발된 학생들은 외국 대학 등록금만 납부하고, 본교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2006년부터 그 모집인원 수와 실제 파견 학생 수가 점점 늘어 2008년에는 약 배울터를 통틀어 총 모집인원 400명 중 1학기 142명, 2학기 155명 총 297명이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더 꾸준한 파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 학생 선발은 어떻게

7+1은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학점 3.0이상의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국제교류팀 자유경쟁', '학과 자체 선발', 그리고 '우수입학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국제교류팀 자유경쟁으로 해외 대학에 나가려는 학생은 해외대학 상담 및 입학허가서 발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국제교류팀에서 지원해준다. 자유경쟁으로 연간 20~30명의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나가게 되며 토를점수와 학점을 1대1로 합산하여 선발한다. 또한 소외되는 학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학생 T/O를 학과별로 배정하여 전체 학과 학생이 고르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과 선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학과선발 파견학생은 학생이 직접 입학지원서를 작성하고 입학허가서 수령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게 7+1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입학생은 1학년 1.2학기 성적 평점이 3.8이상의 학생에 한하여 정시모집 입학성적 상위 10%가 7+1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후 입학생들은 입학성적 상위 20%의 학생들 중 1학년 성적이 3.5 이상인 학생들에 한하여 7+1 선발 혜택을 준다.

### # 절차상의 복잡함

7+1 파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과 선발의 경우 장학금 지급 외의 모든 절차를 파견 학생 본인이 알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과 자체 선발로 해외 파견을 가는 학생들은 선발과정 후 학교를 선정하여, 입학관련 문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입학지원서 제출, 허가서 수령, 수학계획서 입력 및 제출, 학점 인정 요청 등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알아야 한다. 외국 대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지혜(영어·영어 07)양은 "이번학기 7+1 학과선발에 지원했으나, 해외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는 것이 도저히 염두가 안나 포기하게 됐다"며 "아칸소대와 같이 국제교류팀 자유경쟁으로 나갈 수 있는 대학의 수와 모집 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교류팀 자유경쟁 선발의 경우 대학이 영미권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영미권 이외의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절차상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추성호(사범·한국어교육 02)군은 "학생들의 절차상 어려움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유경쟁 선발의 대다수와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학교 측이 꾸준히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대학 임시자료 '미네르바'에는 7+1제도가 시간과 비용 모두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홍보한다. 7+1제도가 학점을 이수하고 동시에 해외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비로 여학연수를 가는 것 보다 경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교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것 외에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해 학생들이 지원해 놓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7+1제도는 해외대학에서 1학기를 수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본교 장학금 면제 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대학에서 수학을 하려면 1학기를 국내에서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걸 감안한다면, 해외 대학 파견학생들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맹수연(영어·영어 07)양은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글로벌, 세계화 같은 말로 홍보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결국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만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외대학 등록금을 면제받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로 오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모자라 어려움이 많다"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우리 대학의 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리대학에서는 7+1 이외의 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들도 시행하고 있다. 복수학위제도의 경우 본교에서 2년, 벨라에이 대학교에서 2년을 수학한 뒤 양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 제도의 경우 본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외대학 등록금을 면제받는다. 지원 가능 대학으로는 일본 후쿠시마대, 독일함부르크대 등 35개의 대학이 있다. 또한 국제교류팀에서는 재외공관 인턴십, KOTRA 인턴십 등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나혜련 기자 carpediem124@hufs.ac.kr

## “정보 구하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 7+1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험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1 제도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장대학교에서 수학한 김선영(서양·프랑스어 06)양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 #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정보입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 그는 7+1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7+1제도로 유학을 가기 위한 신청절차로 지난해 3월 FLEX시험을 치루고 그해 5월에는 유학원에서 정보를 구했다고 한다.

등록금측면에서는 "우리학교는 전액 장학금으로 스타장대학 측 등록금만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제공 해주는 7+1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지인을 통해 알아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학점 교류가 가능한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그의 아는 인사는 학점 교류가 안 되는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우리대학교에서 실질적학점이 인정 이 안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측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에 7+1제도를 통해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절차상이나, 정보를 구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내가 아는 언니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 7+1제도를 통해 얻는 경험

프랑스에서의 언어 연수를 원했는데 이왕이면 학점인정 받으면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결정하게 되었다는 그는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오며 프랑스어 실력이 늘었다고 말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인맥인데, 특히 외국인 친구를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로 입양 된 친구도 만나며 그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준 것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한국인끼리만 놀지 말고 외국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사귀길 바란다. 그리고 가족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학점 이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경험을 말했다.

이준수 기자 legendsoo@hufs.ac.kr

힘이 되는 동아리 제 27대 동아리 연합회

# 동아리 박람회

USB바아가고!!  
현금도바아가자

일시: 2009년 4월 1일!!  
\*\*동아리 방문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사랑 맥주 매니큐어 아이스크림 받아가자\*\*

## 2009년 학생예비군 기본 교육훈련 실시

2009년 학생예비군 기본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예비군은 참가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일자	시간	훈련대상	훈련장소
기본훈련	4. 7(화)	09 : 00-18 : 00	대학원, 영어대, 서양어대	금곡훈련장(동대문구 예비군훈련장)
	4. 8(수)		법대, 동양어대, 일본어대, 중국어대, 사범대	
	4. 9(목)		상경대, 국제화부, 사회과학대, 글로벌경영대	

2. 훈련 구분: 기본훈련은 1~6년차, 소집망 점검훈련은 7~8년차  
3. 교육훈련 제외자: 2009년 전역 예비군 및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필 한 자.  
4. 유의사항  
가. 우송버스 이용 희망자는 07:30까지 학교에 도착하여 승차 바람.  
나. 개별 입소시 08:50까지 금곡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이매동 소재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것.  
다. 대중교통 안내: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앞 → 훈련장 165 3번 버스  
구리들리(구리전철역 부근) → 훈련장 1·3번, 1·4번, 9·11번, 9·3번 버스  
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역증 중 하나) 필히 휴대할 것.  
마. 신분증이 없는 학생예비군은 교육일전에 신분확인서를 비상계획관실에서 수령 받기 바람.  
바.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사. 지연 도착자와 복장 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복 미착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색상이 불일치 자)는 귀가 조치 및 불참처리 됨.  
※ 기타 문의사항은 비상계획관실(신학생회관 2층 243호) 또는 ☎02)2173-2513~4로 문의바랍니다.  
2009. 3. 25

서울캠버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 ‘반값 등록금’ 공약 지켜달라!

## 전국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청원운동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이달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국제학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5조원 추경 편성, 대학생 청원 운동(이하 청원운동)’을 벌였다. 용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7개 단과대학별로 3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청원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 청원운동은 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등록금대책위)가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청원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이하 추경예산)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를 골자로 한다. 청원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청원서를 한나라당에 제출한다. 그러나 청원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 ◇추경예산안에 등록금 인하 관련 예산 편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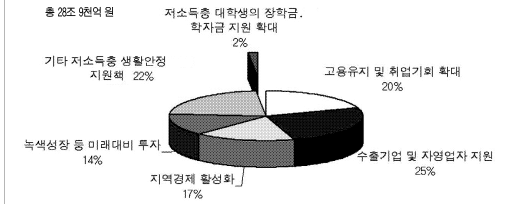
청원운동은 등록금과 한국대학연합회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작년 2월에 설립된 등록금넷은 참여연대 등 510여개 단체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네트워크 단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트랙제도의 실시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5조를 편성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조원’에 대해서 부총학생회장 최부열(사회과학·인문정보 02) 군은 “이 금액은 전국 대학교 등록금 총액등록금의 10조의 절반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액수”라고 설명했다. 청원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각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서명을 수합하여 다음달 1일 청원서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제출, 이어 2일에는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하 추경예산)이란 예산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변경하여 작성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 이외에 추가

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신청한 이후로 각 당과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이미 발표됐으나 아직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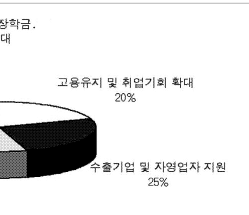
### 〈2009 정부 추경예산안〉



### ◇정부의 추경예산안

주요 여당들이 연이어 추경예산안을 발표한다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도 합의하여 24일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추경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내세웠다. 총 28조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으로 11조2천억 원의 세입 수입 부족분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

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세수부족분은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부자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게다가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인하, 근로장학금지원에 사용될 교육과학기술분야에는 전체 추경예산 중 1조4310억 원만을 편성했다. 등록금



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7%를 상회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고차 0.3~0.8%를 낮추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예산안이 생색 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반값 등록금 공약의 진위

청원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이명박 대



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내놓았다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부터다. 등록금넷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약속 어디로 갔는가”라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과 관련,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반값으로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현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라 사실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8년 4월 한나라당은 이전 의원의 주도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하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학교 청원 운동에 참여해 서명을 한 한상희(서양·목이외 07) 양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지키지 않아 정부의 말에 더 이상 신

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원의 현실가능성

이번 청원운동의 공동 주체인 한대련은 “청원서는 대학생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정당한 한나라당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추경예산안을 확정된 한나라당이 과연 청원서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는다. 대학 교육연구소의 연대원 연구원은 “청원이 받아들여질지 아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가 “그러나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는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부총학생회장 최부열(사회·인문정보 02) 군은 청원 성공 가능성에 대해 “과거에 진행했던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청원에 성공한 사례도 있어 이번에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채운태 기자 placido@hufs.ac.kr

## 다른 나라의 등록금 보조 정책

국립 위주인 유럽 대학들은 등록금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교육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무상교육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은 등록금을 받지만 액수가 적다. 프랑스의 연간 등록금은 30만 원 정도며 독일도 학기당 70만 원 정도로 적다. 스페인의 등록금은 500~1000유로(100유로=약17만원)며 가정소득수준이 일정미만인 중상위 성적인 경우에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제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 분담도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소득에 따라 27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등록금을 낸다. 최하등급이 92유로를 내며 최상등급은 1386유로를 낸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이 공립이며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학과에 대해서는 야간대학과 주말반을 운영한다. 호주는 1989년 고등교육부담제(HECS)를 도입했다. 전공별로 4개영역을 나눠 상환금을 차등화했다. 등록금을 선불로 낼 경우는 금액을 할인받는다. 무상으로 대학을 다닌 후 용자 조건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등록금 후불제는 뉴질랜드와 영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0%다. 단, 학기 도중 생활비는 가족이나 학생

스스로 부담한다. 호주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용자계획을 도입해 극세세에서 등록금 상환액을 징수한다. 이를 위해 호주는 GDP의 1.5% 가량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인도네시아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같다. 종교기관에서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학비가 비싼 편이다. 비싼 학비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ORANG TUA ASUH - 가난한 학생의 양부모’가 되어 학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 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은 정부차원의 대출이 활발하다. 일본학생지원재단(이하 JASSO)이라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있다.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학 전 고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JASSO에 등록하면 가정 형편에 따라 무이자,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만 엔의 입학준비금도 빌릴 수 있다. 또한 ‘올해의 JASSO학생’을 선발해 추가 지원을 하거나 전공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낸 대학생에게 좋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사립 대학 경우는 경산비 일부만 국가에서 지원한다. 미국은 스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스가정 전공을 선택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스가정 장학금 지급을 보장해준다. 좋은 성과를 보일 경우 스가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펠로우십(Federal Pell Grants)이 있다. 또한 등록금간접 규제에 있어 3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상위 5%대학은 2010년부터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영민 기자 young827@hufs.ac.kr

## 시대상상

### 조선 명박 2년 ‘대사간’ 투옥하다

“전하 대사간(大司諫) 이춘근이옵니니다.” “들라하라.” 때는 1409년 봄 명박 2년. 조선의 임금 명박이 즉위한지 2년째 되는 해다. 대사간은 정삼품의 직위로 조선 언론삼사 중 하나인 사간원의 수장이다. 사간원은 간쟁, 탄핵, 시정, 인사 등의 업무를 맡는 기구다. 오늘날의 국영언론이라고 볼 수 있다. “집은 서양쇠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의정(右議政) 정운천을 포함한 그대를 용서할 수 없네.” “전하 통학하시옵소서. 서양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분별 백성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뒷들하느라, 대사간을 파직하고 당장 의금부(義禁府)로 끌고 가라!” 대사간 이춘근은 의금부로 끌려갔다. 대사간은 서양에서 수입된 쇠고기에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 있음을 의심하고 조사했다. 조사 결과 광우병(狂牛病)에 걸린 서양쇠고기

를 먹는 자는 잠복기간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밝혀졌다. 조선 백성들의 건강을 염려해 사 때문에 서양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였다. 한성 백성들을 이를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초췌를 밝히고 광우병의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 서양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서양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면 대신 조선의 마차를 서양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명박은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수입을 책임지던 우의정 정운천을 포함한 죄로 대사간 이춘근을 투옥시켰다. 이춘근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라!”라는 외마디를 남기고 의금부에 끌려가 투옥됐다고 전해진다. 어떤 이는 이 모습을 보고 통곡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신문고를 두드려 ‘대사간을 복직시켜달라’고 읊소했다.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에 구분홍을 앓았고, 사헌부(司憲府)에서 정언주를 쫓아냈으니 절발은 성공했군.’ 임금 명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 채운태 기자

## 주요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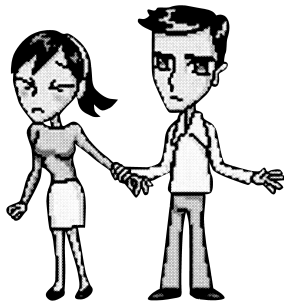
### 〈PD수첩〉 이춘근 PD

이춘근 PD는 MBC 시사교양국 PD다. 대표작은 〈PD수첩〉이며 현재는 국제사교양 프로그램 <W>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체포돼 27일 석방됐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PD수첩이 광우병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와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PD를 포함한 제작진이 지난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24일과 25일 소환에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PD는 석방되면서 “언론인을 이렇게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 정책을 비판한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면 어떤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다음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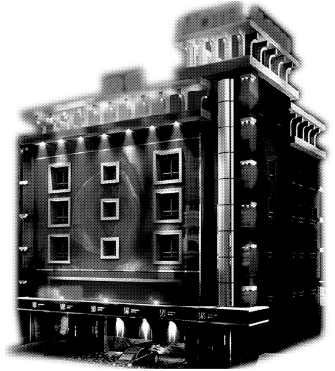
26일 검찰 조사를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끌려오며 호송차에 오르기까지 “언론 자유 보장하라!”고 소리쳤다. 이 PD는 제2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PD상’에 김보슬 PD와 함께 선정됐다. ‘올해의 PD상’은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한 PD 및 방송인에게 주는 상이며 그들의 창조정신과 시대적 사명감을 상징하기 위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 PD는 5분이 넘게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경제만을 살리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경제마저 못 살리고 계시고요. 비양심적인 관료와 정치인들은 권력 앞에 바로 말을 바꾸고 양심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비판했다.”

## 최영민 기자



# 오빠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정자와 난자 이야기만 하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저절로 하품 나오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당근에 콘돔을 씌우며 실제 콘돔 사용법을 초등학교 3-4학년 여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교육과 자란 독일 젊은 이와 아동용 통해 밤새도록 독화하는 '개인교육'을 받은 한국 젊은이의 '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다. 이제 막 어른의 세계로 임문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 고민하는 20살 S양과 친구들이 있다. 그녀들의 대화를 통해 하품 나는 성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들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편집자주**



**S** 나 고민이 있어. 사견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스킨십이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신경 안 썼어. 이전 남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만난 지 일주일 되던 날에 키스 했어. 좀 당황스럽고 내키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 싫었던 감정을 원니스트먼트도 하는 요즘에 이 정도쯤은 관장을 거야 하는 생각도 있었어. 근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런다든가, 손만 잡고 할 테니까 모델가치고 그런다든가. 분위기에 휩쓸릴까봐 걱정이야. 스킨십을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려 하면 오빠는 '사견은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주냐'는 듯이 바라보는데 이게 꼭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져. 내가 오빠를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쩔 땐 너무 싫는데 오빠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보같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뜻하고 일단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는 공허하게 시달리는 거구. 여자애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야.

**S** 난 성이라고 해봤자 배운 게 정자, 난자 같은 과학적 지식밖에 없어. 진짜 남자를 만났을 때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이 옳은 건지 배운 적

하게 연관되어 있고 생활 속의 교육이 이뤄져 올바른 지식의 확립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 지금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 따라가야 할 모델이 없어서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의식도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 돌볼 수가 없잖아. 사실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육체적 성관계를 '사

**E** 하지만 꼭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플라톤적인 사랑도 가능하잖아. 물론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부르게 육체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특히 S같은 경우는 아직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

X말도 맞긴 해. 대부분의 학생이 포르노를 통해서 성을 처음 접하거나 성과 쾌락이 같다고 생각하잖아. 또 성관계를 갖게 됐을 때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배려도 적어. 남자들이야 욕구가 충족되면 그만이지만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 임신의 가능성도 있고 순결이 파괴된다는 느낌도 있었지. 특히 임신은 나중에 일이 터지면 대부분 여자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

**E** 내 주위에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 내 내가 싫은 스킨십은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봐. 싫을 때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대신에 그건 오빠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 명확하게 전해. 내 친구들도 남자친구의 그런 요구를 거절 못해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후회했어. 심하게는 "내가 걸레가 된 것 같아.", "그냥 남자친구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된 거분이다."라는 등의 말까지 하고.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유치원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200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고 있지만 80년대생의 우리는 정자와 난자 그림만 끝없이 보곤했다.



이 없어.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모른 걸 내가 판단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까 걱정스럽고.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말하겠어.

랑'으로 그리기보다 '포르노'로 표현해서 우리는 무의식중에 성을 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을 어두운 곳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받는 거지.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포르노를 통해 성을 처음 접한다. 포르노를 보면 그들의 관계에는 오직 쾌락만이 존재해. 사랑 따윈 찾아볼 수 없지. 성이 사실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합체한 행위인데, 쾌락이나 감각적인 이미지로 왜곡된 거야.

**X** 그런데도 여자들은 거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혹은 남자들이 자신의 진심을 오해할까 봐 제대로 감정표현을 못 해. 잘못해서 임신할 수도 있잖아? 이런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자신의 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을 뿐더러 S가 말하는 '무언의 압박'을 극복할만한 심리적 힘이 부족한 거지. 여자의 'NO'가 'YES'라는 흔념에 사로잡힌 일부 남자들은 여자들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서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지.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정의인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힘을 길러야 해. 또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힘도 기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학교 성문화 상담소 비정규직연구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다혜 기자 hufsch@hufs.ac.kr  
김수아 기자 suaoha@hufs.ac.kr

## 의(때), 해가 지지 않는다 ② 태국어과

여러 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때로는 외국 언어를 공부해 먹거리, 볼거리 등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 기분만만 곳

#### # 흥분만족

태국을 대표하는 '물의 축제' 송끄란은 매년 태국력으로 1월1일 정월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물의 정령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악운을 없애고 타이족의 번영을 비는 데에서 유래되어 왔다. 서로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을 뿌려주던 풍속이 태국의 관광 명물로 자리 잡게 된 것.

하며 본격적인 물의 축제가 시작이 된다. 축제 기간이 되면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축제를 함께 즐긴다고 한다. 작년 한국 태국 수교50주년 송끄란 축제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만 송끄란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4월 12일(일) 안산시 화랑 유원지에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다문화행사에서 송끄란 축제를 체험할 수 있다.



### 먹거리

#### # 탐음록



랩과 시음하며 향긋한 태국음식의 특징을 맛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탐음록(Tom Yam Kung)'이다. 태국어로 '탐'은 '끓이다'라는 뜻이고 '암'은 '새콤한 맛'을 의미하며 '쿵'은 '새우'를 뜻한다.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하지만, 먹을수록 빠져들게 되는 오묘한 맛의 매력에 있다.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태국음식 1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태국 음식점 전문점 어디에서나 탐음록을 맛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렬한 본래의 맛과 향보다 약한 것은 사실. 현지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파직을 첨가하는 것이 좋다.

### 볼거리

#### # 시퀀스

순박한 시골 청년 '맛'은 할머니의 경고를 뒤로한 채 방콕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청소소 아끼시 '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도시의 소시민으로 길들여지게 된다. '방콕판 <연인 타이즈>라 불리는 <시퀀스>는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을 얻기도 했다. 현재 평민들 개발로 방콕과 방콕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 된다는 태국. 태국인들에게 '낙'과 '파도' 같은 방콕이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어둠을 파괴하지 않고 안전지대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태국의 달관적인 국민성을 볼 수 있다. 영동한 캐릭터와 기발한 상상력에 버무려진 타이 전통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색깔으로 매우 매력적인 영화다.

조다혜 기자 hufsch@hufs.ac.kr  
김수아 기자 suaoha@hufs.ac.kr

# 성 상담가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성

## 배정원 성문화 센터 소장 인터뷰

대학생의 성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성의식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몸으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사랑하면 성관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얽혀있다. 성문화가 완전히 개방적이라고 하기도 보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단지 예전보다는 성관계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물론 좀 더 나은 성관계를 위해 경험을 쌓는다는 점은 좋겠지만, 성관계를 갖고 죄책감에 휩싸여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그 전의 사랑에 대한 예가 아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순결의식에 대해 자신을 힘들게 할 정도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생들이 많다.

제로 된 성교육의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교육은 Idea가 아니라 Life다. 우리나라 성교육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 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가르쳐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성을 통렬히 접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성을 이른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되지 않은 것이다. 성교육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이다. 여학생의 경우 생리수첩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여자가 차가운 곳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기도 한다. 따뜻하게 입는 것과 따뜻



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지나친 다이어트는 생리불순을 유발할 수 있다. 생리주기에는 최대한 유제품섭취를 삼가는 것이 생리통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생활과 관련된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외국에서는 성교육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콘돔 끼우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교육이 성욕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 순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성관계 갖는 것이 미풍양속을 해

하는 행동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있다. 임신이나 성병을 문제시하고 매체에서는 성행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하곤 한다. 예컨대 케이블매체에서는 불륜을 다루는 프로를 자주 방영한다. 성을 단지 재미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개방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에게는 간접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 성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나와 내 애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틈과 제리'가 만드는 우리의 불감증

성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주요인들은 인터넷이나 TV매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요즘 폭력영화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주로 이러한 영화들은 폭력메시지를 전달할 때 무리스럽게 표현하여 우리가 폭력으로부터 둔감하도록 만든다.

만화 '틈과 제리'를 보자. 전기에 감전되고 프라이팬에 찌그러지는 틈을 보면서 우리는 웃는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무마시켜버리는 건 아닌가. 외국미디어 전문가는 이 만화를 볼 때 부모가 아이에게 틈이 얼마나 아플까에 대해 언급만 해주어도 아이는 폭력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포르노물에 노출되어 올바른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 정립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메스미디어나 인터넷매체는 인간의 말초적인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하는 폭력적인 섹스 또한 둔감해지게 만든다. 잘못된 정보는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성관계는 skill이 아니라 relations hip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soming@hufs.ac.kr

## 야간

밤에 떠오른 짧은 생각

## Trash;Back

서점에서 매달 구독하는 잡지를 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다. 하지만 3월의 바람에서 봄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일부러 버스를 타는 대신 걸었다. 4차선 도로 양 옆으로 서있는 가로수들과 화단의 꽃잎에는 벌써부터 봄기운이 감돌았다. 난 이들을 보며 감상에 젖어있었다. 희색 빌딩숲을 헤치고 아스팔트 바닥 사이에서 나무들은 곳곳이 자라난다. 삭막한 도시에서 우리는 이를 덕분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 때 커다란 가로수보다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가득 찬 쓰레기 봉투였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걸 버리는 밤중에 물레 두고 간 듯했다.

봄날의 정취를 깨는 쓰레기 더미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다. 한 블록을 제 지나지 않아 내 레이더망에 계속 포착되는 쓰레기들. 빙그레 웃는 바나나 맛 우유, 빈 피자봉지는 기본이다. 옷장 속에 걸려 있어야 할 옷걸이들까지 길가에 너부러져 있었다. 나 역시 다 먹은 피자봉지나 우유 껍을 슬쩍 길가에 버린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 날 나에게 봄기운을 선물해준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쓰레기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 자리인 쓰레기통을 찾아봤지만 걸어도 돌아오는 동안 발견할 수 없어 집에 와서야 버릴 수 있었다.

며칠 후, 봄맞이를 위해 가벼운 재킷을 입고 집 앞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당당의 고민거리들을 여유롭게 처리해야 하고 마음먹었다. 자리에 서 일어나 다 마신 커피 잔을 버리고도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 하지만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조금 전의 여유를 잃은 채 커피 잔을 구겨가며 공원 한 바퀴를 돌아, 간신히 쓰레기통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쓰레기통을 찾기 위한 공원 한 바퀴는 생각보다 길었다. 조금 전까지는 두 손에 꼭 쥐고 다니던 커피 잔이었지만, 커피를 다 마시고나니 매우 거주장소처럼 무겁게까지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 손을 그 일회용 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다. 자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던 나 역시도 쓰레기는 싫었다. 그리고 쓰레기가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 공원에서 쓰레기통은 단 한 개 뿐이었으니 말이다.

밤금 전까지는 필요하면 물론이거니와 사용자들을 다하면 불필요한 쓰레기가 된다. 그러나 가치를 잃어 땅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좀 전에는 나의 간식이기도 했고, 더러워진 일가를 닦아주던 깨끗한 휴지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책임은 올바른 장소에 버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에는 서툴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었던 것은 무언가를 사용한 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소박하고 귀여운 1인 캠페인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를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강의 후 다 마신 캔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의 캠페인에 함께하실 외대학우분-어디 계시나요?

김수아 문화부 차장

## SELF 성교육 시간

### 섹스북(Das Sexbuch)



제목부터 강렬한 이 책은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교육서이다. 우리나라에 출판되면서 사립수의 사진들이 역자의 코멘트로 대체되었지만, 제목만큼이나 과격적인 사진이 실려 있다. 그러나 적나라한 사진이 이 책의 전부는 아니다. 섹스북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털어놓는다. 카이 우베라는 소년과 울리케라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부터 올바른 피임법, 자신의 첫 경험 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성이 비밀스러운 것, 통제되고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 될수록 금금증은 높아간다. 이 책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서 우리를 잘못된 성의식으로부터 해방 시켜줄 것이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http://www.ahacenter.kr/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YMCA가 서울시

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교육 상담 전문 기관이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여의도에 위치한 아하! 센터에서는 성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섹스일리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에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질적인 성지식을 볼 수 있다. 특히 평소 궁금하던 성관련 사안을 사진적으로 배열해 놓은 '알송달송 성지식사전'과 간단한 만화로 콘돔사용법 등을 전해주는 멀티미디어 자료실이 유용하다.

김수아 기자 suaoha@hufs.ac.kr

## 문화부 기자수첩

정지은 기자 soming@hufs.ac.kr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로 개봉  
영화로도 개봉된 책 <더 리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트 윈슬렛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작품이다. 독일소설인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에 출간되었는데 이번엔 영화 흥보를 하면서, 재출판 됐다. 15살 어린 남자와 36살이 여자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여 자칫 불륜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전통적 도덕관념과 사랑에 대한 죄의식 사이의 미로를 끊임없이 풀어가려 시도한다. 더 리더는 단순한 스토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최정음 연  
소중한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은한 감동을 선사하는 <민들레 바람>이 2월 13일부터 서울 PMC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양로트 공연을 시작했다. 드라마나 영화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세 남자 안내산, 조재현, 정웅인이 변장아가면서 공연한다. 똑같은 대본으로 연극하지만 세 배우에게서 풍기는 각자의 느낌은 서로 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며 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떤가?

Dont Look Back의 20주년 기념  
브릿팝의 제왕, 영국 최고의 국민 밴드라고 불리는 오아시스(Oasis)가 오는 4월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오아시스는 영국 팝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앨범', 영국 역대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을 가진 영국 최고의 로큰롤 스타 중 하나다. 또한 '우리앨범이 비틀즈보다 낫다'라는 등 거만할 정도로 항상 당당한 태도는 이미 오아시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어록들이 쏟아져 나와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 예멘 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 ‘만악(萬惡)의 근원’ 알카에다?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과 정부 신속대응 팀에 대한 연쇄테러에 대해 언론과 대부분 전문가들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알카에다는 여러 차례 공시성명을 통해 한국을 테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전미국가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2004년 김신일 사건과 2007년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 피랍사태와 같은 전례도 있었다. 또 자살폭탄공격은 전형적인 알카에다의 테러방식이다.

그러나 석연찮은 점들도 있다. 알카에다와 같은 큰 조직이라면 범행 후 분명히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을 것이다. 지난 1월 알카에다는 사우디와 예멘의 통합지부를 예멘에 설립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직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면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선전하기 위해 책임을 주장했을 것이다.

예멘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알카에다의 소행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증동에서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당시국 정부는 ‘외부에서 잠입한 알카에다의 소행’임을 강조했다. 알카에다는 증동에서 ‘만악(萬惡)의 근원’인 것처럼 각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 자국의 독재정치와 경제·사회 정책의 실패로 인한 테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임을 각국 정부는 주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와 치안 정책을 강화하고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집권층이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예멘 테러의 원인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부족 때문이다. 증동 테러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은 예멘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 후나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정보도 제대로 없다. 증동에 대한 관심부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관심이 있다면 경제 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증동을 에너지 공급처, 상품의 수출처 그리고 플랜트 수출처로만 간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97년 IMF로 경제위기에 빠진 정부는 예멘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 2008년에 재개설했다. 10여 년간 문을 닫아놓았으니 예멘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테러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만 탓할 것도 아니다. 언론도 그렇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언론은 추측성 그리고 예멘 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기사를 내보냈다. 분석기사도 영성하기만 했다. 현지 전문가 없이 기사조차 없던 것이 아니라, 현지 언론의 보도를 받아 적기에 바빴다.



수적으로 증동을 취재할 만한 인력도 없다. 증동에는 현재 5명의 한국 특파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에 SBS와 연합뉴스, 두바이에 KBS, 연합뉴스 그리고 한 경계신문 특파원이 전무다.

베트남보다도 그 수가 적다. 베트남은 카이로에만 3명의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서도 아이같이 적은 숫자다. 증동에 활약하고 있는 중국 특파원 수는 수십 명에 달한다. 카이로에만 스무 명이 넘는 자국인 특파원을 가지고 있다. 카이로 시내에는 12층 높이의 신화사 자체 빌딩이 있다. 여기에 각 특파원과 기자는 현지인 취재원과 비서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은 물론 국정원 등 정부 기관에서도 지역 전문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 언론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 전문 취재진의 확충에 나설 여건 되지나 힘도 없어 보인다. 한국 언론은 아직도 국제 이슈에 있어서는 서방의 정보를 상당부분 이용하려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현지 언론이나 외신을 인용하기 바쁘다. 이 때문에 증동 독재정권의 ‘알카에다 만악의 근원’ 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현재 알카에다의 지도부 조직은 와해돼 없어진 상태다. 다만 알카에다의 이념을 의미하는 ‘알카에다즘’이 증동 전역에서 자체적인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을 뿐이다. 대규모로 움직였다는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이에 협조하는 증동 독재정권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적

인 조직망을 가진 테러단체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얼굴 없는 테러’ 조직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운로더를 테러’라고 칭한다. 몇 명이 모여서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다운로더해 테러를 감행하는 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조직구성, 무기구입, 폭발제조 등의 정보가 모두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닌다. 심지어는 체포돼 심문을 당할 시 ‘불지 않는 방법’도 인터넷상에 올라간다. 누구라도 한국에 반감을 가지는 몇 사람이 모이면 이런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도시에 거주하는 이집트인들을 만났다. 이들은 그 도시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가고 있다. 쓰레기 집하장에 오두막을 지어 대어 쓰레기 일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본국의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지게 될 불만이 폭발할 경우 국내에서도 테러를 감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쓰레기장에는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인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도 제3세계 외국인인 ‘배출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풀이켜볼 시점이다.

서정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세상의 중심에서 외국어로 외치다

희재가 되었던 문장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 외국어로 읽어본다.

## 지구가 아파요

지구의 오염으로 지구가 아픈 이때 '지구가 아파요'를 각 국 언어로 알아본다

헝가리어

Beteg a Föld

베테크어 펠드

일본어

ちきゅうがいた  
地球が痛い。

시구가 이 타이

프랑스어

La planète est malade.

라 플라네테 에 말라드

이탈리아어

L'uomo fa male alla Terra

르모 파 말레 알라 테라

폴란드어

Ziemia jest hora

지에미아 예스트 호라

영어

The earth is so sick

디 어스 이스 소 시크

아랍어

الأرض مريضة

알-아르드 마리다툼

스페인어

La tierra está enferma

라 티에라 에스타 엔페르마

독일어

Die Erde ist kr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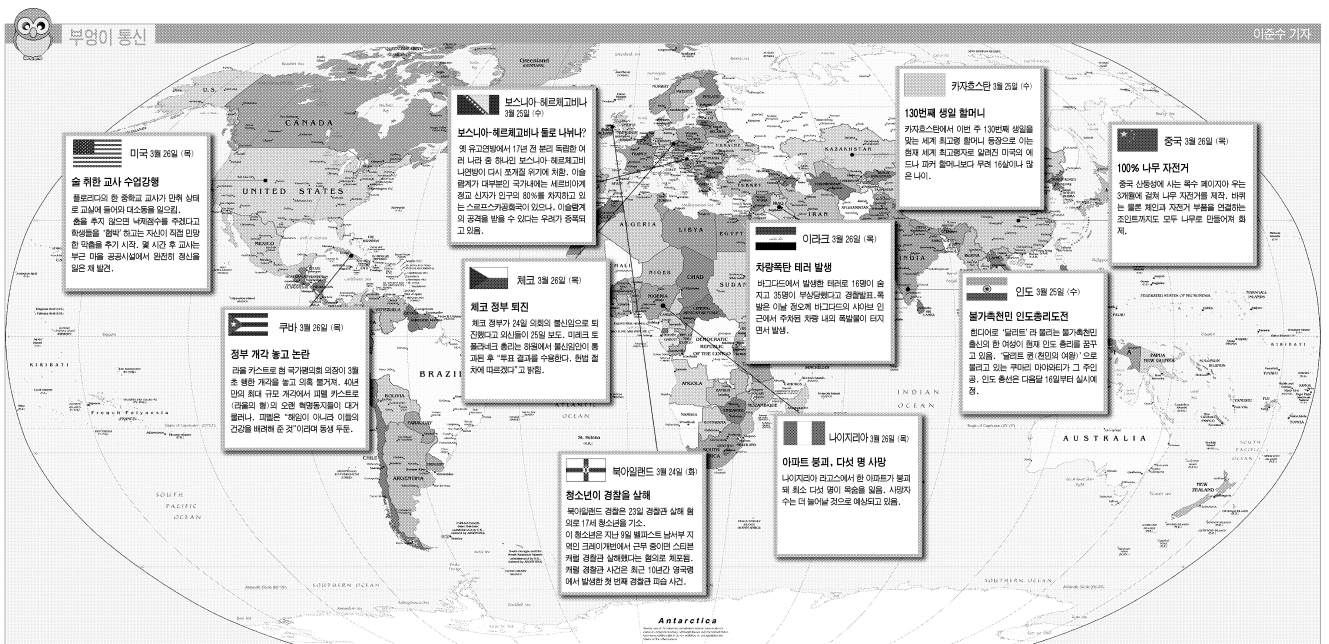
디 에르테 이스트 크랑크

인도어

भूमि बीमार है

부미 비마트 헤

정리 이준수 기자 legendsoo@hufs.ac.kr



# 외국어학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현대사회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를 원어처럼 잘 구사하는 것은 큰 장점이다. 기업에서도 이제는 영어 인터뷰는 기본이다. 외대의 모토인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처럼 외국어는 세상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언어만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외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어를 학습하는 일은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외국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외국어 학습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모국어인 한국어와 외국어와의 상관성이 있을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 특히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 Skehan(1988)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와 외국어 수준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모국어인 책을 읽고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외국어학습에서 강조되는 것이 말하기 능력에서 더 나아가 토론능력과 글쓰기능력을 강조한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논리적 사고능력이 없이는 토론과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언제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러너버그(1967)는 "결정적 시기 가설"에서 사람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2세부터 10세 초까지라고 하였다. 언어습득을 쉽게 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연 언어습득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을까?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관한 증거로 Genie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

다. Genie는 출생 후 20개월이 지난 후부터 13년 이상 독방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성장하였다. 13세 때 발견당시 모국어인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발견 후 8년 이상 영어교육을 받았지만 모국어인 영어의 습득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문법 능력에서 현저히 떨어졌다. 이 Genie의 경우를 통해서 언어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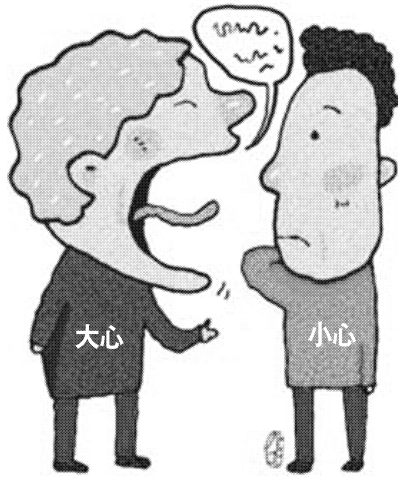
득 시기가 중요하다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모국어 이외에 영어와 같은 제2언어습득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을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결정적 시기가 지난 대학생 모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도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발음 및 문법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종료

되었지만 8-10세 전으로 늦게는 18세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결정적 시기가 지난 성인들이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발음 및 문법능력이 있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기표, 2000). 앞으로 더 명확한 연구들이 행해져야 하겠지만 분명히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 뇌는 다시 재구조화, 복원력, 재생력을 지닐 수 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뇌는 얼마든지 유연해지고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 이후에도 학습자의 환경, 적성, 학습태도, 학습전략 등의 변인이 외국어 학습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언어마다 외국어 학습에 차이가 있을까? 미국 국무성 외교관 양성기관의 1985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 외국어학습 기간에는 모국어와 목표 언어간의 거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보다 영어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초급의 경우 3,000시간, 중급의 경우 6,000시간, 고급수준의 경우 9,000시간이 노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루에 4시간씩 외국어를 학습한다고 할 경우 9,000시간은 6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평생해도 외국어를 원어처럼 제대로 학습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루에 네 시간씩만 외국어에 몰입한다면 고급 수준의 외국어는 6년 이후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6년 이후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껴보고 상상해 보자. 현재 나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천중 언어인지과학과 강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교수



득의 결정적 시기는 13세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러너버그(1967)는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근거로 두뇌 가소성(plasticity)의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춘기에 뇌의 좌우반구의 역할이 굳어진다는 '두뇌 편측화 현상(brain lateralization)'때문에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서는 두뇌 편측화가 끝나기 전에 습득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적 가설을 제2언어습득에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최근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사춘기 시기 제2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결정

된 후에는 언어습득이 불완전하거나 불가능한 것인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정적 시기가 지난 성인들이 제2언어를 습득할 때 최종능력에서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보여준 연구도 있었다. Seliger(1975), Oyama(1976), Patkowski(1980)의 연구결과 나이는 발음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제2언어 습득을 학습한 기간과 다른 변인들은 발음습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Patkowski(1980), Coppeters(1987), John & Newport(1989)의 문법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관한 연구에서 결정적 시기는 정

## 문학으로 세상보기

13번째 이야기

### 우리는 '명태' 다?



채호석  
한국어교육과 교수

지금 우리는 '명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린 명태인 '복어'이거나, 아니면 명태 새끼인 '노가리'다. 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바라본다. 영혼을 빼앗겨 버리고, 바삭바삭하게 말라버려, 입을 벌리고 있어도 숨을 쉬지 않는 (혹은 못하는) 우리는 '명태'다.

"모두가 입을 벌리고 있다 / 모두가 머리보다 크게 입을 벌리고 있다 / 벌어진 입으로 쉬지 않고 공기가 들어오지만 / 명태들은 공기를 머시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다 / 모두가 약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입만 벌리고 있다"(김기택, '명태', 첫 연)

스무 살의 치기 어린 '남만'은 사치가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오늘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외침조차 '꾼'들의 소리로 치부돼 버린다. 한 여배우의 죽음은 스타들끼리 아니면 '리스트'로 기억되는 지금, 우리들은 '명태'다. 우리들의 일상은 비무하여, 불안정한, 알 수 없는, 그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에 오늘을 저당 잡히고, 열심히 '스펙'을 채우고 관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언제든 그 '내일'을 우리의 '내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젊은 바리톤의 저음으로 노래하는 어떤 명태의 '외침'은 헛소리거나 단 말마이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 책과 책 찢어지거나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 내 이름만은 남아 있으리라 /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양명문, '명태')

바삭 말라 굵혀, 시인의 입속에 들어가는 명태에게 이런 '희망'은 날조된 희망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숨도 쉬지 않으면서, 약소는 얼굴로, 입만 벌리고; 그대도 '이름'을 남을 거라고; 꿈포 자유로워! 그대에게 '명태'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일 뿐이다.

"냉동어의 꿈은 바다에 있다."(채만만, '냉동어') 비록 꿈은 꿈포 얻어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다를 꿈꾸는 '명태'가 조금은 더 나를지도 모른다. 오늘 이루지 못할 희망일지라도, 생생하게 살아 꿈틀거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참된 희망, 그것은 그들에게는 수지가 되어, 우리에게는 영혼이 된다.

## 기고 칼럼

기관재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도 중 발생한 뇌 손상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24일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학병원과 병원이라고 하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 장치가 그 소임을 다함에는 아직도 요원함을 보여 준 판결이라 심히 서글픈 심정이다.

지난 2004년 미열이 있고 깊은 호흡이 잘 되지 않아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하는 한 기독교재단 Y대학원에서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고 의원의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는 나의 폐활관을 잘라 삼시간에 대량출혈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질식과 저산소증이 일어나 뇌 손상에까지 이어졌다. 나는 하루아침에 각종 신체장애를 경험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여성 동안 기나긴 시련의 재활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이 대학병원과의 의료분쟁은 긴 법정소송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모두 병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패소한 것이다. 20여 페

이지에 달하는 상고사유서에 대해 상고심의 판결문은 단 3줄이었다. 나와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나를 현재 치료해 주고 있는 다른 의사, 한의사 및 재활치료사들은 판결에 분개했다. 나의 지푸란 소송을 맡아준 K변호사도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본 의료사고를 통해 나는 대학병원과 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과

채택하였고, 여섯째, 대학병원 측이 불리한 핵심 사실에 대해 침묵 또는 말 바꾸기로 일관할 때, 재판부도 이를 묵인하고 함께 침묵하는 것 뿐이다.

그 후 최종 병명은 본 대학병원이 진료기록에 처음에 병기한 오진병명 'T2 N0' (이것은 폐암1기 중 후기를 뜻하는 전문코딩어)이 아니고, 대신 단순염증으로 밝혀졌다. 즉, 처음부터 본 대학원에서 이거도 계열에서 질 수 있다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가 침묵하듯 무시당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 그리고 병원 상급심판조차 환자의 보호보다 대학병원의 편에서 당연히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검사를 도중에 폐활관을 의사가 자른 것이 왜 의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해 보라며, 그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 분쟁에 환자, 의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 간의 사회적 상호신뢰와 협력성이 언제쯤이나 형성될지 안타깝다. 나의 의료소송에 대한 일련의 판결은 법

원이 판독과 진단을 단순패미라고 정확하게 했더라면 상기 검사는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최소한 그들이 검사과정에 미숙하지 않았더라도 이 엄청난 신체장애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인 본 대학병원 재판과 병원은 피해자에게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 분쟁에 환자, 의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 간의 사회적 상호신뢰와 협력성이 언제쯤이나 형성될지 안타깝다. 나의 의료소송에 대한 일련의 판결은 법

리지 못하면 병원 측과 병원은 피해자라고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결국 각종 신체장애로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으나, 그 동안 대 의뢰분쟁에서 그러하듯 대학병원, 대학재단도, 의사도 그리고 그밖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계층까지도 신의성실과 사회정의를 실종된 바 꾸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례한 것일까? 우리 대학들이 육성해야 하는 책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이라던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능력, 신뢰, 그리고 책임의식으로 사회를 지켜 나가는 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 이전에 그리고 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남을 보내왔을까 그리고 보내게 될까? 나는 나 자신을 안아 주고 싶고 또 그들을 안아 주고 싶다.

나의 사고 분쟁 기록 및 자료를 바탕으로 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이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우리 사회 지식계층의 무책임과 부끄러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사회도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덴마크처럼 특권·부패·반칙·비리·기만이 통하지 않는 진정한 상호신뢰의 사회로 변화되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리탐구와 함께 사회적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 대학이 상호신뢰 사회에 부끄러워지 않는 진정한 지식인을 배출하고 그 계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는 대학 보다 더 당당하게 기여하기를 염원한다. 권태형 | 경영정보학 교수

## 지식인의 무책임과 부끄러움 그리고 진정한 상호신뢰사회

책임의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국내 최고수준 그리고 글로벌 표준의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대학병원에서, 둘째, 수술도 아닌 검사 과정 중 검사실 내에서, 셋째, 폐활관을 파열 시킨 후 기본적인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이 지연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넷째, 병원과실의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였고, 다섯째, 재판부가 법정신체감정소견서와 진료기록의 내용을 판결근거에서 제외하고, 대신 출처 불명의 내용을 판결근거로

로거아웃

변재홍 | 대학부 차장

가벼움의 미학

대학 학보사의 변화를 꿈꾸는 시기는 방종기간이다. 학기 중에는 제작싸이클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학보사시기에 학기 중에 학보사의 변화를 꿈꾸는 것은 버겁게만 느껴진다. '학보의 문제가 뭐가?', '우리는 어떤 학보를 만들어 가야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수습기자에서 퇴임을 앞둔 부장단까지 저마다 할 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학보는 너무 재미없어요. 캠퍼스레벨이나 대학내일처럼 재미있게 만들어 봐요. 학보는 딱딱하고 어렵기만 해요"라는 기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당 위성이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 너무 어린 수습시절, 전체회의를 하면서 학보사 기자들과 나눴던 고민과 생각을,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우리에게는 펜대라는 무기가 있다. '이것이 학보, 나아가 대학인론의 사명이다'라는 예기들을 하면서 공감하기도 했고 엔지 모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보사 기자로서의 사명감,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라도 적어도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갈수록 사라져 버린다. 굳이 학보를 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은 도처에 널려있기에 어렵기만하고 구시대적 향수에 젖어있는 듯한 학보는 구닥다리처럼 느껴지기도 모른다. 학보사를 두고 대학사회 변화에 2~3년쯤 뒤쳐진다는 말을 한다. 아무리 대학신문이 날마다 해도 바깥사회(?)의 빠른 변화상을 잡아낼 수는 없다는 말이다. 모든 것이 변화를 시도하고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 시기가 학보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때이지 모른다. 변화도 좋고 자유스러움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를 달 것은 그러한 변화를 피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뉘는 원칙에 충실할지하는 점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후퇴함으로써 얼룩졌던 90년대. 그 시대를 살아왔다. 90년대 선배들에게 배울 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치열한 고민과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이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가벼움, 좋다. 무거움을 벗어던지는 것.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무거움이 있어야 가벼움이 있듯,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은 단지 무거움이 반대되는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 속에서 나오는 가벼움이라 말할 수 있다. 결코 아무렇게나 하는 가벼움이 아닌 치열한 가벼움,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움이다.

학보사로 문 두드려주세요!

외대학보사에서는 학생, 교직원 등 우리학교 가족의 기고문을 기다립니다. 내가 목격한 시간·사고도 학보사로 제보해주세요! 오, 학보 광고를 원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hufspress@hanmail.net
서울: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응인: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편집증: 010-5775-2920

학보비평

전재승 | 동아리-플러던스 08

새내기들의 감초

입학 후 처음 받아보는 외대 학보. 무엇보다 고등학교 시절에 접하던 교지에 비해 훨씬 성숙되고 깊이가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느꼈다. 교내 소식은 물론 사회·문화·국제·학술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의견들까지 폭넓게 실려 있었다. 이러한 학보를 받아 들고 천천히 읽어보니 학교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부분까지 알차게 정리되어 있어 참 좋았다.

특히, 우리 새내기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장학금 문제일 것이다. 그 점을 반영하듯 입학관련기사에 걸맞게 정리된 표로 장학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학내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소개하면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 준 점도 고마웠다. 또한 우리학교에 의무화 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종전 공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면서, 현 시점의 문제점까지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타 대학 사례에 비교한 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문화를 다룬 지면 또한, 현 사회의 여러 트렌드들을 풍부한 소재들로 기사화한 점과,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문화 평론과 용어 설명들을 쉽고 재미있게 일구어 내었다는 점에서 좋았다.

처음 접해본 외대 학보가 내게 준 인상은 '알짜짜'였다. 바라는 점이 아예, 지금보다 교내의 다양한 소식들을 더 많이 알리고, 외대의 학보답게 국제 면을 조금 더 보충해 주었으면 한다.

붉은 광장

홍원표 | 자유전공학부 교수

스포츠와 정치 사이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먹는 문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가능케 했던 많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경제문제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툰짜리 오페라』에서 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한 "음식이 먼저이고 도덕은 그 다음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자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는 다음일 것이다.

얼핏 보면, 이러한 표현은 상이한 영역이나 활동에 공통분모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보들레르의 시 『교감』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자연은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며, 인간은 활동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정신적 교감을 체험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

며칠 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러한 유형의 대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관심의 대상이고 상업적 이벤트이므로 비정치적 성격을 띤 '사회영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WBC 대회가 국가대표선수들 사이의 경쟁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번 대회 및 그 과정의 정치적 의미를 행위자 및 구조의 측면에서 찾아보기도 한다.

한 사람이 공익의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곧 정치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인식 감독의 탁월한 용병술과 선수들의 공동노력은 정치행위의 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선수들은 공격이나 수비에서 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강한 연대정신을 발휘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개인적 기어는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힘을 모아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 가는 선수들의 모습은 더 감동적이었다.

연극무대로 비유되는 정치영역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특이한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 즉 자유와 평등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번 WBC가 열렸던 경기장은 다른 차원의 '정치영역'이었다. 대

회 규칙에 따라 한국 팀은 결승전을 치루기까지 일본팀과 다섯 차례 경기를 가졌는데, 비전문가인 필자로서는 이러한 규칙을 흔쾌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합당하지 못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 대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장은 평등의 영역은 아니라, 오히려 경제 권력의 위력을 한껏 보여준 공간이었다. 그러나 연봉 수준에서 가장 열악한, '가장 배고픈 팀'으로서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의 노력은 정치행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수들의 탁월한 스킬의 노력은 정치행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수들의 탁월한 스킬의 노력은 정치행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수들의 탁월한 스킬의 노력은 정치행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휴산의 소리

휴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i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뺑자'야 얼른 줘와-

우리학교의 불편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뺑자'이다. 용인배움터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은 생각했을 법한 교내스쿨버스(행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려고 한다.

특히 기숙사생이라면 크게 공감 할 문제다. 아침시간 1교시를 듣기 위해 기숙사 앞 승차장에서 교내스쿨버스를 타고 가다 기다리는 1교시에 자각하기 싫상이다. 이미 모퉁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만원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은 몇대의 교내스쿨버스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배차간격을 '5분'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어렵다면, 아침시간만이라도 '5분'이라는 배차간격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또 교내

스쿨버스는 항상 빈다. 어떻게든 끼어 타려고 계단에 발걸음을 겨우 올리거나 타거나 마땅히 잡을 것도 없이 사람들 중간에서 있을 경우에는 위험천만이다. 교내에서는 천천히 다니는 스쿨버스지만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그 모습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아침시간과 쉬는 시간, 귀가 스쿨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교내스쿨버스운행 수를 늘리거나 배차간격을 줄여야 안전하고 편리한 뺑자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교내스쿨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용인배움터 7000명의 학생들이 웃으면서 뺑자를 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남민욱 | 공대-디지털정보공학 08

지난 1년의 회상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내기를 맞이하는데 분주하기만 했던 3월이 벌써 다 지났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많은 생각이 든다. 그 때에 비해 나 참 많이 달라졌다. 작년 나는 대학생이라는 이름이 어색했다. 화장도 잘 할 줄 몰랐고 옷차림도 마냥 학생 같았다.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1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자율적인 대학 분위기 속에서 나 또한 자율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똑같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던 그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각자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내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은 정말 좋은 변화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에는 겪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끔 인간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말을 하려면 나는 아직 어리기만 하다. 하지만 겨우 1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달랐다. 앞으로는 더 성숙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문지애 | 서양-스페인어 08

• 지역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 마감 : 매주 목요일 정정 • 교직원명 : 전자문 hufspress@hanmail.net

나비의 반란①

김영득 | 사법-영어교육 02

<고정기호>

딱 10년 전

등교는 분명히 8시 15분까지였다. 하지만 8시 30분에, 심할 때는 8시 45분에도 학교에 도착했다. 늦잠을 잘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7시 50분에 일어나 후다닥 집을 뛰쳐나온 건 8시 10분이었고, 학교에 도착하면 8시 30분이었다. 8시 50분까지는 자습이었다.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짹짹하게 조화하시고, 수업은 9시부터 시작됐다.

토요일은 신나는 날이었다. 한 달에 두 번은 야외활동을 했고, 한번은 특별활동, 그리고 남은 한 번은 학급회의. 물론 학급회의 때는 대개가 자습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반에서 따로 소풍을 가기도 했고, 운동장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먹던 날도 있었다. 어디든 나가기 아까? 이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켈

쳐진(소위 이해찬 1세대, 한때는 단군 이래 최치학력이라고 해도 되었던) 나의 고등학교 1년 때의 이야기다. 3시에 정확히 수업이 끝났다. 역시나 짧은 종례. 3시 30분부터 특기적성교육을 받았다. 나는 일본어를 배웠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선생님께서 회화를 가르쳐주셨다. 한창 일본 회화수업을 많이 하면 시절이라 일본어 실력이 쑥쑥 늘었다. 연말에는 4급이랑 5급 시험도 보았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개치로 레이드였던 '한 가지만 잡해도 대개 한 칸'다는 말을 철칙 같이 믿고, '내년에는 1급을 보고 말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해찬 1세대라 하기에 2세대도 그리고 3세대도 생각 좀 알아다. 그런데 그 해 수능시험이 끝

나면서 우리는 재물이 되고 말았다. 어른들은 모의고사 성적 따위를 들추며 '단군 이래 최치학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우리에게 붙여 주었다. 어른들은 또 정 말이지 손쉽게 우리의 미래를 뒤집어 놓았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우리였다. 하지만 왜 그 교육정책과는 실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고3들 때문에 이해찬 씨가 장관에서 물러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2학년이 되자마자 너무도 쉽게 뒤바뀐 미래를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6시에 집에서 나왔다. 1교시 수업을 6시 30분에 받았고, 7시 30분부터는 아침보충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즐거웠던 특기적성교육은 이름만 빙자한 오후보충수업으로 변해 있었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온 탓에 나는 보충수업 때 잠을 자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었다. 그렇게 지난 고등학교 3년, 아직까지도 조금 분하고 화나는 것은, 우리더러 단군 이래 최치학력이라고 욕하던 어른들이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이해찬 때보다 더한 저능아들이라 욕을 했던 것이다. 그때 차라리 우리 때는 1학년 내내 놀러 다니기만 했다는 핑계라도 있지. 우리 때문에 잔뜩 겁 먹고 오로지 수능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강산도 바뀐다는 10년. 자정을 넘기고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의 고시절을 떠올렸다.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공포와 다투는 아이들. 그 경쟁 뒤에 또 다른 경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것일까.

명수당 이상환 | 정치외교학과 교수·연구실험력단장

### ‘한국 사회과학의 위기’ 논의에 즈음하여



1980년대 초 한국의 대학생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나 하는 고민에 빠져있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도 정치학, 경제학 관련 전공서적을 적지 않게 읽었으며, 실제 한국의 사회 현상을 다루는 다양한 교양서적을 읽고 토론을 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다. 그러했던 젊은이들이 오늘날 486세대를 형성하며 한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학가의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한 집단은 미래의 한국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다른 집단은 한국 사회의 개조를 주도하는 사회 운동가가 되기 위해 캠퍼스 대외 운동 속에서 민주화를 외쳤다. 오늘날 그들은 국회에서, 학계에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시절 그들이 선택한 길은 달랐으나 오늘날 그들은 한국 사회를 주도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 대학 시절에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애

정으로, 나아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가치관으로 승화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들이 젊은 시절 읽었던 사회 교양서적과, 스터디 그룹에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토론 등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낱어는 몇 권 안 되는 책을 보며 저절로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준 스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날 대학생은 무슨 고민을 할까? 소위 486세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국 사회 내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과연 그들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 현상을 다룬 책을 일주일에 한 권도 안 읽는 대학생들이 존재하

는 현실을 깨닫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자성을 하게 된다. 지난 27일 ‘위기의 시대: 사회과학의 역할을 묻는다’는 주제로 사회과학 관련 여러 학회가 모여서 학술회의를 하였다. 이 학술회의에서 ‘2009년 한국사회과학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번 선언을 주도한 한 학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사회 등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과 정책 마련에는 사회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사회과학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최근 한국 내 사회과학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의 위기를 학계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동네 BOOK 손지현 | 독일어 통번역학 4

### 황석영의 바리데기

바리데기는 우리나라의 고전 신화에서 내려오는 신화 중에 하나다. 한 나라의 공주인 바리가 7번째 딸로 태어난다. 아들을 원한 아비에게 버려져 온갖 고생을 한다. 그러나 후에는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도 약수 측 생명수를 구해 병든 부모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작가는 이 바리공주 신화를 자신의 소설에 잘 바꾸었다. 주인공이 겪는 갖은 고생의 길이 바리공주이야기와 대비된다. 작품에서 바리는 신화와 똑같이 7번째 딸로 태어나 한 번 버려지게 되고 한동안은 이름도 없이 지내다 결국은 바리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뽀뽀이 흠뻑이 버린 가족을 등지고 바리가 탈북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게 된다. 바리공주가 겪는 지옥 같은 여정이 현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한다. 신기가 있었던 바

리가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뉘를 띄워 절실함과 바리의 할머니를 만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바리가 겪는 환상들은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바리가 겪는 환상들은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기묘한 장치인 것이다. 또 작품에서 역사적 사실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흥미롭다. 바리가 겪는 역사적 사건들은 소련의 해체 (1989), 김일성 사망 (1994), 9·11테러(2001) 등이다. 작가가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의 고통을 작품에서 어떻게 보여내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바리가 구한 생명수가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작가는 숨은그림찾기라며, 생명수가 무엇인지 바리가 그것을 찾았는지 독자에게 되묻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찾을 것인가?

**일시 정지**

### 책은 나를 품는다

언제고 괴로운 환상을 받고 싶을 때는 너의 책에게로 달려가라. 책은 언제나 변함없이 친절하게 너를 대한다. - T. 톨러 변재홍 기자

사설

### 정상적 표현의 자유를 석방하라

촛불집회 참석자와 ‘미네르바’ 구속에 이어 이제는 언론인들까지 잡아 가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는 MB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낙하산 인사 ‘구분홍’을 YTN사장으로 내정했다. YTN노조는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100명의 용역직원으로 둘러싸여진 주주총회장에 발도 들이지 못했고, 총회는 30초 만에 성사돼 ‘합법적’(?)으로 사장이 임명됐다. 노조원들은 낙하산인사 불임정의 단체행동으로 주주총회 무효소송과 출근저지투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노조원 12명 고소, 33명 해고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였다. 이것이 지난 24일 노총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까지 이른 ‘YTN사태’의 전말이다. 노 위원장이 구속 된지 하루 만인 25일 밤, ‘미국산 쇠고기 공우병 위험 보도’를 한 MBC (PD수첩) 이준근 PD가 이어 ‘김계보’됐다.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검찰의 소환에 ‘연론탄압’이라며 불응해온 조희승 (PD수첩) 전 책임 프로듀서 등 나머지 언론인들도 차례차례 체포 중이다. ‘반정부정적 언론인’ 체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참으로 끈질기다. 맨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은 PD수첩 보도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안을 다룬 것이고 정운찬 장관이 당했다는 명예훼손의 피해도 구체적이지 않아 제작진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사건수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당시 수사팀의 부장감사는 강제수사방식과 범리적용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올해 초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은 새로운 수사팀을 조직해 수사를 강행하고 결국 이 PD 체포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의 방송내용은 정운찬 장관 및 농림수산부에 직접 비판을 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방송한 것이었다. 단순하게는 정책실행자인 정부와 제작진의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아닌가. 이 상황은 현 정부가 정책이 바뀌는 주장하는 언론인에 대해 응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론사(言論社) 수업시간 비디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을 2009년인 지금, 재방송도 아닌 뉴스 생중계로 보고 있다. 배드라고 사이 나쁜 형제지만 조·중·동은 형제가 잡혀가고 있는데도 말이 없다. 편들어주면 잡혀갈까 걱정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리다 정말 언론은 입에 재갈을 물거나, 기어아 하는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인가. 올해 초에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200개가 넘는 그의 글 중 단지 2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논란이 된 것이 ‘사이버모욕죄’이다. 이 처벌항목이 어차구니가 없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법부의 판단으로 알아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명백한 여론통제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타인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풍자조작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할 때 종종 써오던 수단이다. 실제로 모욕죄가 도입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는데 한나라당은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룬다. 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된다. 현 정부의 언론 통제를 넘어선 탄압은 북한독재정권이나 과거 우리나라 독재정권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권점장

### 비둘기 칠판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서울영인의 기사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 서울메일: 신학성원 401호 02-2173-2504 > 영인메일: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hufspress@hanmail.net

**■ 이론법**

- 붉은 광장의 주인; 중앙동아리 외인부대... <외인부대 이동진>
- 4년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대학 연합동아리 KUSA!! <KUSA 전종훈>
- 도서관에서 하이힐신고다니는 여학우분들, 자제해주세요.. <도서관이용하는 법대생>
-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증권투자연구회 POSTRADE <POSTRADE 박정영>

**■ 왕산골**

- 국제술연구회 연결,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 들은 학생회관 402호로 와주세요. <연결 한유나>
- 시작도 하기 전에 겁내지 마십시오! 장구치는 재미와 핑거리치는 재미는 안 해보면 모르나니깐! <한알 이효진>
- 넓고 아늑한 동아리 방에서 공강과 방과 후가 심심하신 분들은 DOLCOM으로. <DOLCOM 조석철>
- 존재자체로 사랑받고 싶지 않으니나? 존재자체로 사랑받는 다른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IVF로 오세요. <IVF 박시현>
- 자대에 여왕이 생겼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열판도 삼켰었으니 많이들 이용하세요. <총여학생회>

### 십자말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②		⑧
			⑫
③			
		⑩	⑪
④			⑦
		⑨	
⑤			
⑥			

**■ 7월 11일**

- ① 우리학교 용인메일터에 있는 구성원의 생활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 ② 생활을 기록해서 사실을 전달하는 사전
- ③ 일정한 시가면 총회
- ④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한국어
- ⑤ 사람이려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
- ⑥ 이번 호 문화면 ‘외대, 해가지지 않는다’에 나온 국가의 대표적인 음식
- ⑦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를 줄인 말

**■ 8월 11일**

- ② 3월 16,17일에 서울메일터 동아리 연합회가 개최한 행사
- ③ 두 개 이상의 문화권 출신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
- ④ 이번 호 문화면 ‘외대, 해가지지 않는다’에 나온 국가
- ⑦ 우리 대학에서 7학기를 수학과 외국대학에서 1학기를 수학하는 제도
- ⑩ 예산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추가·변경하여 작성한 예산
- ⑫ 갑배에 빠지면 아쉬운 노란 무

**■ 정답 십자말 놀이를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선착순 3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진작가 최민식 씨 인터뷰



# 휴머니티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의 사진을 찍다

1928년 황해도 연백 출생의 최민식 작가. 올해 그의 나이는 여든 하나다. '사진작가 최민식'은 생소해도 누구나 한번쯤 그의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미쓰비시 기능공이었던 그가 사진을 시작한 것은 1957년이었다.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전문학교에서 사진 공부를 시작한다. 사진의 대부분은 부산에서 찍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는 현재 부산 광안리에서 산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사진에 빛을 아름다움은 거기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온통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뿐이었고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필름에 날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은 '중이거울'이라고 불린다.

### # "중이거울의 시작"

1957년에 밀항으로 일본에 갔다. 미술공부를 하고자 동경전문미술학교 디자인과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사진을 시작했다. 하루는 일본 친구들과 한책방을 돌아다니다가 "The Family Man (인간의 가족)"이라는 책을 사서 봤다. 그 책이 나를 사진가가 되게 만들었다. 내 첫 카메라도 중고 카메라였다. 사진기술이 가장 많이 늘게 된 때는 1962년에 가톨릭교회에서 돈을 받고 사진을 찍을 때였다. 가톨릭 자선회 신부가 '가난한 사람을 찍어오라'는 주문을 했다. 사진을 시작한지 10년째 인 1967년 영국 사진연감에 스타포토그래퍼(star photographer)로 실리게 되었다. 이때에는 독일사진연감(fotoalbum anen)에 하이라이프를 실렸다. 하이라이프는 책의 제목 앞에 실리게 되는 사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 # "불쌍한 사람들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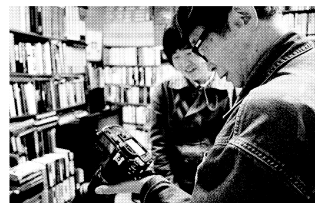
50, 60년대에는 거지가 참 많았다. 미국의 원조물자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내가 어려움 없이 자라 사진작가가 되었다면 아마 아름다운 전경이나 인물과 같은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다크사진작가는 본 바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다.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이다. 내 사진의 목적은 '나누자, 도와주자', 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인색하다. 적선을 안 한다. 며칠 전 남포동 지하철역에서 구호단체가 계좌 후원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시에 놓은 사진들을 보니 너무 가여워서 후원신청을 했다. 그때가 오후 3

시쯤이었는데, 그날 내가 처음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었다. 모금활동이 너무 안 되서 집고 내일 올라간다고 그들이 그러더라. 솔 마실 돈은 다들 있으면서 5초에 한명씩 굶어 죽어가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아프리카에서 진흙 빵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 # "흑백사진"

기자-선생님 사진은 왜 모두 흑백인가요?  
내가 칼라로 사진을 못 찍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번 책에는 10페이지를 칼라사진으로 넣었다. (웃)



▲화보기자의 사진을 평가하는 모습

음) 구태어 칼라로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색깔로 예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다. 사진에 메시지만 담기면 되지 않나. 살가드, 쿠벨카(점점 주-세계적인 다크사진 작가)도 칼라로 사진을 찍진 않는다. 또 흑백사진이 경제적이기도 하다. 칼라사진의 1/4 정도의 가격이다.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칼라로도 찍는다. 그곳의 모습은 색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 "인류를 위한 사진을 찍고 싶었다"

한번은 내 책을 몇 권 들고 서울에 있는 유니세프에 찾아갔었다. 나는 성급 모으거나 기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귀찮았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퍼퓸 드는 생가지 (열이 받아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일본유니세프에 가서 요청을 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뭐 별로 불발지도 않고 허허. (웃음) 그래서 결국 못했다. 외국의 다크사진작가들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다. 어디를 가는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독재정권의 간첩"

기자-지금까지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나요?

시대가 바뀌니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훈장을 주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문화훈장을 줬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사진 찍어서 나라방신시킨다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해외초청을 거르고 해외 여권을 안 만들어 주는 정도였다. 한번은 독일에서 초청을 받아 출국을 해야 했다. 여권을 안 만들어 주니까 독일 외무부 차관이 직접 우리나라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겨우 여권을 만들어 간적도 있다. 여권 만들었다고 새벽에 전화가 왔다.

7년도엔가. 미국에 갈일이 있었는데 또 여권을 안 만들어줘서 못 갔는데 거기 조총련계 사람들이 '최민식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랬더라. 안 갈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때는 간첩으로 사형이 될 수도 있었던 시대였다. 또 '인간(HUMAN)' 1집을 동아일보사에서 출판했었다. 그 해 말 울릉도에서 간첩이 잡혔는데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첩의 소지품에서 '인간 1집'이 나온 것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한 포장을 보여주며 "너 가질래?" 절렀었다.

간첩신고를 한 100번은 당한 것 같다. 거지한테 간첩신고 당한적도 있다. 동해안, 서해안만 가도 신고를 당하곤 했다. 예전에는 간첩신고하면 포상금이 3000만원이었으니까. 발제야 분전이니 일단 한번 신고를 다들 하는 거다. (웃음)

### # "원로 사진작가의 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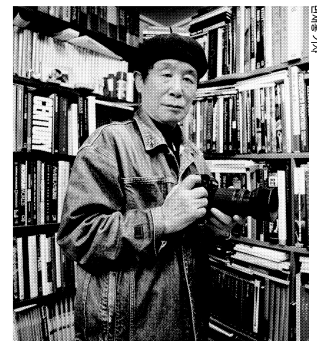
현 정부에 들어와 문화지원정책이 바뀌었다. 문화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 예술계 원로의 수는 고작 73명이다. 거기서 사진을 하는 사람은 나 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인원을 더 줄인다는 게 아닌가! 그것도 30명이나 줄인 43명으로 말이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거기가 빠지게 될까봐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다행히도 그 43명중에 내가 들어간 것지만 너무 안타깝다. 원로예술가들이 돈이 많은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나만 봐도 그렇지 않나.

### # "여든의 사진작가"

기자-책이 엄청 많네요?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민간자료 소장은 내가 쳐먹었다. 김수환



▲포즈를 취한 최민식 작가

추기경의 모든 유산이 국가기록원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나 자료는 모두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최민식 사진방으로 가게 된다. 한번 가봤는데 지하 4층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왔다. 여짜나 시설이 좋고 보관이 잘되어 있는지, 실록이 마치 최근에 나온 듯 깔끔하게 보존돼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나는 눈이 참 좋다. 눈이 안보이면 사람을 발견 못하고 그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다. 가끔은 내 스스로도 이상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걸 해왔나 모르겠다.

기자- 요즘도 매일매일 사진 찍으러 가시나요?

내가 늘 시간이 어디 있다. 나이가 여든이 넘었는데.

서지경 기자 unlandy@hufs.ac.kr

변재홍 기자 hufspress@hufs.ac.kr

